

2026년 2/4분기 경기도 고용동향 분석

< 요약 >

- '26년 2/4분기 경기도 일자리 창출은 매우 부진하여 취업자는 작년 2/4분기 대비 △5만4천명(△0.7%) 감소(전국은 3만2천명 증가)
 - 경기도 취업자 증가율은 1/4분기 0.2%에서 2/4분기 △0.7%로 0.9% 포인트 하락, 같은 기간 전국 취업자 증가율은 0.6%에서 0.1%로 하락
 - 실업도 증가하여 경기도 실업률은 작년 2/4분기 2.6%에서 3.1%로 크게 상승, 실업자는 21만4천명에서 25만1천명으로 증가(전국은 2.8%에서 2.9%, 실업자는 84만4천명에서 85만5천명으로 소폭 증가)
- 거시경제 지표는 반도체 수출 증가로 개선되었으나, 경기도는 경기부진으로 제조업(△7만 2천명)과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(△2만5천명)에서 취업자가 크게 감소
- 경기도 제조업 취업자 감소는 4년간 계속되어 누계 약 △21만명으로('22.3/4 149만명→'26.2/4 128만명), 전국 제조업 취업자 감소와 비슷한 규모
- 보건·복지업 취업자 증가폭은 유지되었으나, 전문·과학·기술업 전국 취업자가 크게 감소하였으며, 경기도에서도 감소한 것으로 유추됨

- '26년 2/4분기 경제성장은 전분기 대비 0.6%(전년 동기 대비 3.7%) 추가 성장하여 지난 1/4분기의 깜짝 성장에 이어 또다시 기대 이상의 성장을 실현
- 우리 경제는 1/4분기의 전기비 1.8%라는 높은 성장에 이어 2/4분기에도 전기비 0.6% 추가 성장함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3%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함
 - 한국은행, 「경제전망」(2026년5월)은 2/4분기 전기비 0.2% 성장을 전망하였으나 전망보다 높은 전기비 0.6% 성장을 실현
- 수출은 반도체 수출 증가에 힘입어 1/4분기 전기비 5.9%의 깜짝 성장에 이어 2/4분기에도 전기비 1.4%로 추가 성장하여 성장세를 이어 나갔으며, 민간소비도 전분기 대비 0.4% 성장하여 국내 수요도 회복세를 이어 나감

<표 1-1> 경제성장률 (계절조정 전기비 및 전년 동기비)

(단위: %)

경제성장률	2024	2025				2026	
	4분기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	1분기	2분기
계절조정 전기비	0.2	-0.2	0.6	1.4	-0.1	1.8	0.6
전년 동분기 대비	1.1	0.2	0.7	2.1	1.6	3.8	3.7

자료: 한국은행, 「2026년 2/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(속보)」, 2026.7.23.

- '26년 2/4분기에는 수출과 제조업 생산이 1/4분기의 큰 폭 성장에 이어 성장세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, 민간소비도 회복세를 지속하여 서비스업 생산도 개선됨
- 수출은 1/4분기에 전기비 5.9%(전년비 11.8%)로 높은 성장을 달성한 데에 이어 2/4분기에도 전기비 1.4%(전년비 9.0%) 성장하여 성장세가 확대
 - 한국은행은 금년의 수출 증가는 반도체 등 수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결과¹⁾로 국내 총소득(GDI) 성장률(2/4분기 15.6%)은 경제성장률보다 크게 높으며, 임금과 주가 상승에 따른 자산효과로 소비 개선 등 내수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²⁾

1) 1분기 반도체 가격은 전년동기대비 92.5% 상승.

2) 한국은행, BOK 이슈노트 (2026-16) 「이번 교역조건 개선은 왜 다른가: 반도체 경기 호조의 실물경제 파급 영향」, 2026.7.19.

- 이에 따라 제조업 생산은 1/4분기의 전분기 대비 3.9%(전년비 7.2%) 성장에 이어 2/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1.2%(전년비 6.5%) 성장으로 성장세 확대
- 반면 건설업은 1/4분기의 일시적 회복(전분기 대비 2.2%, 전년비 $\Delta 3.9\%$)에서 다시 전분기 $\Delta 1.6\%$ (전년비 $\Delta 3.8\%$)의 감소세로 복귀
- 민간소비는 1/4분기의 전기비 0.6%(전년비 2.7%) 성장에 이어 2/4분기에는 전기비 0.4%(전년비 2.5%) 성장을 달성하여 소비 회복세가 확대
- 이에 따라, 서비스업 생산도 '26년 1/4분기 0.6%(전년비 3.2%) 성장에 이어 2/4분기에는 전기비 1.1%(전년비 3.5%) 성장으로 회복세가 확대

<표 1-2> 계절조정 전기비 경제성장률 (실질)

(단위: %)

경제성장률	2024	2025				2026	
	4분기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	1분기	2분기
국내총생산(GDP)	0.2	-0.2	0.6	1.4	-0.1	1.8	0.6
민간소비	0.0	0.2	0.7	1.1	0.4	0.6	0.4
수 출	0.9	-0.5	3.0	1.6	-0.2	5.9	1.4
제조업	0.6	-0.6	2.1	1.7	-0.6	3.9	1.2
건설업	-3.0	-1.5	-2.0	-0.3	-3.7	2.2	-1.9
서비스업	0.4	-0.1	0.7	1.2	0.6	0.6	1.1

자료: 한국은행, 「2026년 2/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(속보)」, 2026.7.23.

<표 1-3> 전년 동분기 대비 경제성장률 (실질)

(단위: %)

경제성장률	2024	2025				2026	
	4분기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	1분기	2분기
국내총생산(GDP)	1.1	0.2	0.7	2.1	1.6	3.8	3.7
민간소비	1.1	0.5	1.0	2.0	2.4	2.7	2.5
수 출	3.9	1.5	4.3	6.8	4.6	11.8	9.0
제조업	2.5	0.4	2.6	3.9	2.4	7.2	6.5
건설업	-6.2	-12.4	-10.4	-6.9	-7.6	-3.9	-3.8
서비스업	1.3	1.0	1.3	2.3	2.4	3.2	3.5

자료: 한국은행, 「2026년 2/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(속보)」, 2026.7.23.

- '26년 2/4분기 경제성장률이 3%대로 양호하고 서비스업 생산도 3%대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취업자 증가 폭은 전국과 경기도 모두 1/4분기에 비해 이례적으로 큰 폭으로 축소되었으며 특히 경기도의 고용이 크게 악화 (표 2-1)
- 전국 취업자는 1/4분기 전년비 18만3천명에서 2/4분기에는 3만2천명 증가로, 경기도 취업자는 1/4분기 전년비 1만3천명 증가에서 △5만4천명 감소로 축소
 - 취업자 전년비 증가율은 전국은 1/4분기 0.6%에서 2/4분기 0.1%로 하락하였으며, 경기도는 1/4분기 0.2%에서 2/4분기 △0.7%로 0.9% 포인트나 대폭 하락
- 작년 2/4분기와 비교하면 전국은 20만7천명 증가에서 3만2천명 증가로 축소된 반면, 경기도는 9만4천명 증가에서 △5만4천명 감소로 축소되어 경기도의 취업자 증가폭 축소(14만8천명)는 전국(17만5천명) 규모에 육박할 정도로 이례적인 큰 폭임
- 경기도는 '24년 하반기와 '25년 상반기에는 전국 취업자 증가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전국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었으나 '25년 3/4분기 이후 금년 2/4분기까지 4분기 연속 일자리 창출이 극히 부진
 - 경기도는 작년 하반기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되고, 보건·복지업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며, 금년에는 전문·과학·기술업 등에도 취업자 증가 부진이 확산되는 양상

<표 2-1> 전국과 경기도 취업자 증가 (전년비)

(단위: 천 명)

구분	2025				2026	
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	1분기	2분기
경기도	126	94	-3	7	13	-54
(증가율, %)	(1.7)	(1.2)	(0.0)	(0.1)	(0.2)	(-0.7)
전국	155	207	217	195	183	32
(증가율, %)	(0.6)	(0.7)	(0.8)	(0.7)	(0.6)	(0.1)
경기도/전국 (%)	81.3	45.4	-1.4	3.6	7.1	-

자료: 국가데이터처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 (KOSIS 국가통계포털)

- 일자리 창출의 부진에 따라 각종 고용지표도 대폭 악화되었는데, 경기도 실업률은 전년동기 2.6%에서 3.1%로, 실업자는 21만4천명에서 25만1천명으로, 고용률

은 64.7%에서 63.6%로 대폭 하락 (표 2-2)

- 반면, 같은 기간 전국 지표의 변화는 경기도에 비하면 훨씬 더 완만하여, 전국 실업률은 2.8%에서 2.9%로, 실업자는 84만4천명에서 85만5천명으로, 고용률은 63.5%에서 63.2%로 하락
- 2/4분기 경기도 고용동향의 중요한 특징은 청년취업이 많은 정보·통신, 전문·과학·기술, 제조업 등에서 고용이 크게 감소하였다는 것으로 청년 고용이 크게 악화
 - 청년 고용 악화는 20~29세 고용률 하락으로 나타나는데, 경기도가 작년 2/4분기 65.2%에서 61.6%로 크게 하락, 전국은 61.0%에서 59.4%로 하락

<표 2-2> 전국과 경기도 주요 고용 지표

	실업률 (%)		실업자 (천명)		고용률 (%)		20~29세 고용률(%)	
	'25.2/4	'26.2/4	'25.2/4	'26.2/4	'25.2/4	'26.2/4	'25.2/4	'26.2/4
경기도	2.6	3.1	214	251	64.7	63.6	65.2	61.6
전국	2.8	2.9	844	855	63.5	63.2	61.0	59.4

자료: 국가데이터처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 (KOSIS 국가통계포털)

- 2/4분기 전국 취업자의 전년비 증가폭은 1/4분기보다 약 15만명이나 작는데, 제조업 감소폭이 7만명 확대되었고, 도소매·숙박음식업과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에서도 취업자 증가폭이 각각 약 4만명, 2만명 축소
- 제조업 취업자는 1/4분기 △2만7천명에서 2/4분기 △9만7천명으로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며, 건설업 취업자는 2/4분기에 △3만9천명으로 여전히 감소세를 지속
- 도소매·숙박음식업에서는 서비스업 생산의 회복(전년비 3.5%)에도 불구하고 1/4분기 전년비 △6천명에서 2/4분기 △4만3천명으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됨
 -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중 도소매업에서 1/4분기 전년비 9천명 증가에서 2/4분기 △4만4천명 감소로 반전된 데에 기인
- 금년 들어 반도체 수출의 급증으로 거시경제 지표는 호전되었으나 경제의 전반적인 경기는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여 취업자 증가는 여전히 부진함
- 전국 취업자는 전년동기 대비로는 증가폭 축소가 더욱 뚜렷하여, 작년 2/4분기 20만7천명 증가에서 금년 2/4분기 3만2천명 증가로 감소하였는데, 사업·개인·공공서

비스업에서 작년 2/4분기 전년비 45만5천명 증가에서 금년 2/4분기 22만7천명 증가로 약 23만명이나 축소된 것이 가장 큰 감소 요인임

- 금년 2/4분기의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 축소의 특징은 보건·복지업 증가폭은 크게 줄지 않은 반면(전년비 22만9천명 증가), 전문·과학·기술(△8만9천명)과 교육(△1.0만명)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축소된 점임
- 전문·과학·기술 취업자는 꾸준히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작년 2/4분기에도 전년비 11.1만명 증가하였으나 지금까지의 추세가 역전되어 금년 2/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△8.9만명이나 감소함
- 교육업은 작년 2/4분기 전년비 3.4만명 증가하였으나 금년 2/4분기 △1.0만명 감소

<표 2-3> 산업별 취업자: 분기별 전년 동기 대비 증감

(단위: 천 명)

산업별		2025				2026	
		1/4	2/4	3/4	4/4	1/4	2/4
전국	전산업	155	207	217	195	183	32
	제조업	-81	-91	-67	-51	-27	-97
	건설업	-173	-118	-102	-106	-26	-39
	도소매·숙박음식	-14	-27	-1	26	-6	-43
	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	345	455	469	352	249	227
	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	104	124	53	99	76	83
	전산업	126	94	-3	7	13	-54
경기	제조업	-22	-33	-53	-49	-54	-72
	건설업	-60	-32	-20	-10	36	5
	도소매·숙박음식	65	25	19	38	22	-16
	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	102	130	82	17	-24	-25
	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	61	61	14	51	53	78

자료: 국가데이터처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 (KOSIS 국가통계포털)

- 경기도 취업자는 1/4분기 전년비 1만3천명(0.2%) 증가에서 2/4분기 전년비 △5만4천명(△0.7%)의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, 1/4분기에 비하여 제조업(△1만8천명), 건설업(△3만1천명), 도소매·숙박음식업(△3만8천명)에서 모두 취업자의 전년비 증가폭이 축소되거나 혹은 감소폭 확대됨

- 제조업 취업자는 1/4분기 △5만4천명에서 2/4분기 △7만2천명으로 감소폭 확대
- 건설업 역시 전년비 5천명 증가로 1/4분기의 3만6천명 증가에서 대폭 축소
- 도소매·숙박음식업은 1/4분기 2만2천명에서 2/4분기 △1만6천명으로 대폭 감소
 - 경기도 도소매·숙박음식업은 전국이 완만한 감소세를 보인 것과 달리 '22년 3/4분기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금년 들어 감소세로 전환
- 경기도 취업자도 작년 2/4분기와 비교하면 9만4천명 증가에서 △5만4천명 감소로 증가폭 축소가 이례적으로 큰 폭인 14만명에 달하는데, 그 가장 큰 원인은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15만5천명이나 줄어든 데에 있음
-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 취업자는 작년 2/4분기의 전년비 13만명 증가에서 금년 2/4분기 전년비 △2만5천명 감소로 15만5천명의 큰 폭으로 축소
- 경기도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 중 어느 산업에서 감소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, '25년 하반기의 「지역별고용조사」 추이를 참고한다면 금년 2/4분기의 감소는 보건·복지업보다는 전문·과학·기술업에서 크게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됨

3 산업별 취업자

1) 제조업

- 전국 제조업 취업자는 작년 2/4분기 이후 점차 축소되던 전년비 감소폭이 2/4분기에는 △9만7천명으로 다시 확대되었으며, 경기도 제조업 취업자 역시 감소폭이 확대되어 금년 2/4분기에는 △7만2천명 감소를 기록
- 전국의 제조업 취업자 감소(전년비)는 ('25.2/4) △9.1만 → (3/4) △6.7만 → (4/4) △5.1만 → ('26.1/4) △2.7만 → (2/4)△9.7만으로 감소세를 지속
- 경기도의 제조업 취업자 역시 ('25.3/4) △5.3만명 → (4/4) △4.9만명에 이어 ('26.1/4) △5.4만명 → (2/4) △7.2만명으로 감소폭이 확대

<표 3-1> 분기별 시도별 제조업 취업자 증감 추이

(단위: 천 명)

전년 동기 대비	2025				2026	
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	1분기	2분기
전국	-81	-91	-67	-51	-27	-97
경기도	-22	-33	-53	-49	-54	-72

자료: 국가데이터처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 (KOSIS 국가통계포털)

- 제조업 취업자는 4년간 계속 감소하였으므로 누계로는 큰 규모인데, 경기도 제조업 취업자는 '22년 3/4분기 149만명에서 '26년 2/4분기 128만명까지 4년 동안 계속 감소하여 누계로는 △21만명에 달하는 매우 큰 폭으로 감소
- 전국 제조업 취업자가 '22년 3/4분기 453만명에서 '26년 2/4분기 432만명으로 4년간 △21만명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경기도의 제조업 감소는 전국과 비슷할 정도로 큰 규모임
- 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경기도에 집중되는 이유는 경기도는 중국 수입제품과 경쟁 관계에 있는 금속가공, 기타 기계·장비, 플라스틱 등 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임

2) 건설업

- 2/4분기 전국 건설업은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어 전년비 △3만9천명(△2.0%) 감소한 반면, 경기도는 5천명(0.9%)으로 소폭 증가
- 전국 건설업은 극심한 부진이 계속되고 있으나, 작년에 이미 취업자가 10만명 이상씩 크게 감소하였으므로 2/4분기 취업자 감소폭은 △3.9만명에 그쳐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임
- 경기도 건설업 취업자 감소는 전국에 비하면 양호하여 작년도 취업자 감소폭도 크지 않았으며 1/4분기에 증가세로 돌아선 데에 이어 2/4분기에도 5천명으로 소폭 증가
 - 제조업과 달리 건설업 취업자 감소는 특정 지역에 집중된 양상은 나타나지 않음

<표 3-2> 분기별 시도별 건설업 취업자 증감

(단위: 천 명)

전년 동기 대비	2025				2026	
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	1분기	2분기
전국	-173	-118	-102	-106	-26	-39
(전년비, %)	-8.3	-5.7	-5.0	-5.2	-1.4	-2.0
경기도	-60	-32	-20	-10	36	5
(전년비, %)	-10.0	-5.3	-3.4	-1.7	6.7	0.9

자료: 국가데이터처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 (KOSIS 국가통계포털)

3) 도소매·숙박음식점업

□ 도소매 및 숙박·음식점업에서는 민간소비와 서비스업 생산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전국과 경기도 모두에서 취업자가 증가하지 못하고 있으며, 2/4분기에는 오히려 전년 비 감소를 기록 (표 3-3)

-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감을 살펴보면 전국과 경기도에서 모두 비록 감소폭이 크지는 않지만 민간소비 증가율이 작년보다 높아졌음에도 취업자는 감소함
- 이러한 추이는 거시경제 지표에 나타나는 민간소비와 서비스업 생산의 회복에도 불구하고, 실제 소비경기의 회복세는 아직 약함을 시사함

<표 3-3> 도소매·숙박음식업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감

(단위: 천 명)

전년 동기 대비	2025				2026	
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	1분기	2분기
전국 도소매·숙박음식	-14	-27	-1	26	-6	-43
전국 도소매업	-60	8	13	34	9	-44
전국 숙박음식점	46	-34	-15	-7	-15	0
경기 도소매·숙박음식	65	25	19	38	22	-16

자료: 국가데이터처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 (KOSIS 국가통계포털)

□ 경기도와 전국 도소매·숙박음식업 취업자의 2013년 이후 장기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은 코로나 시기의 감소를 아직 회복하지 못하였고 경기도는 2024년 경에는 2016년 수준을 회복하였다는 큰 차이가 있으나, 최근 1년간에는 전국과 경기도 모두에서

큰 변화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 (그림 1A)

○ 도소매·숙박음식업의 최근 추이는 전국과 경기도 모두에서 큰 변화가 없는 채로 작은 폭의 등락

□ 전국의 취업자 감소 추이를 도소매업과 숙박·음식점업으로 나누어 보면, 도소매업에서는 취업자가 계속 감소하였고 숙박음식점에서는 코로나 시기의 취업자 감소는 '23년경 회복되었으나 취업자가 그 이상 증가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음 (그림 1B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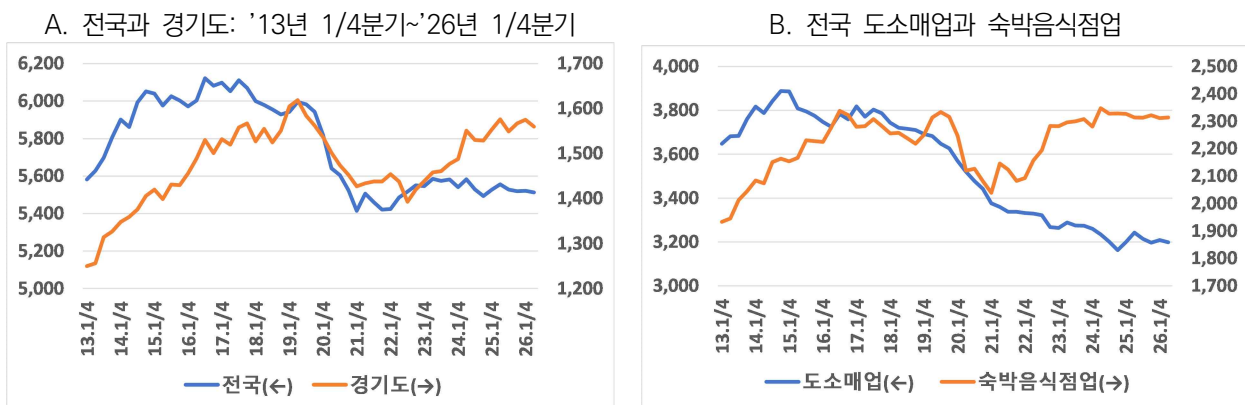
○ 도소매업 취업자 감소는 전통적인 수퍼, 할인점의 구매를 전자상거래가 대체하는 기술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인데, 코로나 시기에 변화가 가속되었으나 최근에는 변화가 비교적 둔화된 상태임

○ 전국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'23년경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증가하지 못하고 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

○ 금년 들어 내수가 회복되면 음식점업 취업자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, 회식 감소 등 소비자 선호 변화로 수요가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

[그림 1] 전국과 경기도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장기 추이

(단위: 천 명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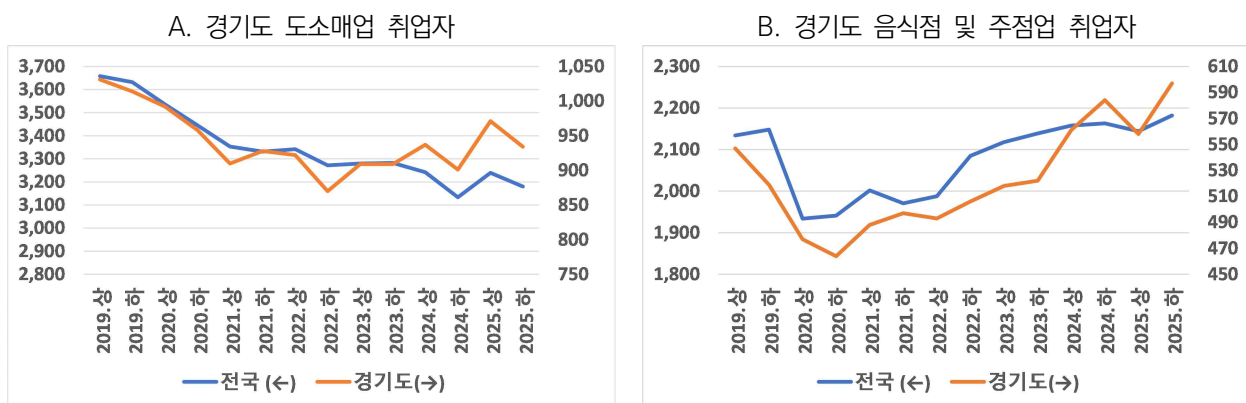
자료: 국가데이터처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, 「지역별고용조사」 (KOSIS 국가통계포털)

□ [그림 1A]에서 경기도는 전국과 달리 '22년 이후 작년까지는 도소매·숙박음식업 취업자가 증가하였으므로 그 증가 양상을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으로 나누어 자세하게 살펴보면 [그림 2]와 같음

- 분기별 취업자를 발표하는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는 일종의 속보성 통계로 표본수가 작아 시도별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각 산업의 취업자는 발표하지 않으므로 반기별 조사인 「지역별고용조사」 결과를 이용하여 경기도의 '25년 하반기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[그림 2]와 같음
- 경기도 도소매업 취업자는 전국 도소매업 취업자의 하락세와 달리 '23년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여 코로나 이전인 '19년 규모를 회복 (그림 2A)
 - 경기도와 전국에서 도소매업의 구조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기 보다는 경기도는 경제성장이 높으므로 도소매업이 전체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
- 숙박·음식점업 취업자는 대부분 '음식점 및 주점업'인데, 전국은 코로나로 인하여 '19~'20년에 취업자수가 약 10%나 급감한 후 '23년에야 이전 수준을 회복한 반면, 경기도는 '23년경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이후에도 성장세를 지속함
- 이와 같이, 경기도는 최근 수년간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에 있어서 모두 전국보다 강한 취업자 증가세를 보였으나 지난 1년간은 전국과 다름없이 취업자 증가가 정체되고 있음

[그림 2] 전국과 경기도 도소매업과 음식점 및 주점업 취업자: '19년 상반기~'25년 하반기

(단위: 천 명)



자료: 국가데이터처, 「지역별고용조사」 (KOSIS 국가통계포털)

4)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업

- 2/4분기 전국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업 취업자의 전년비 증가는 8만3천명(2.2%)으로, 1/4분기(2.0%)와 전체적으로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음
- 운수·창고업은 경기변동에 따라 등락하는 대표적인 산업인데, 금년 2/4분기 증가율은 전분기(4.5%, 7만6천명)보다 낮은 2.6%(3.4만명)로 축소되었지만 작년 2/4분기에 1/4분기의 $\Delta 4.2\%$ 에서 3.3%로 증가율이 크게 증가한 데에 대한 반락효과가 있음을 감안하면 1/4분기와 비슷한 경기상황으로 보여짐
- 금융·보험업 역시 증가율이 1/4분기 2.0%에서 0.7%로 하락하였으나 역시 작년 2/4분기 성장률(전년비 8.5%)이 매우 높은데 대한 반락효과가 작용한 결과로 해석됨
- 정보·통신업은 작년 2/4분기 이전에는 5만명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'25년 3/4분기 이후 금년 1/4분기까지 정체되었다가 2/4분기에 소폭 증가(3.0만명, 2.6%)로 반전되었는데, 청년 취업이 많은 정보·통신업의 부진은 청년 일자리 악화의 한 원인으로 작용

<표 3-4> 전국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

(단위: 전년 동기 대비, %)

전년 동기 대비	2025				2026		비중*
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	1분기	2분기	
전국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	2.9	3.4	1.4	2.7	2.0	2.2	13.1
전기·가스	-4.2	3.3	11.1	12.4	4.3	13.8	0.3
운수·창고	-0.2	0.6	0.8	2.5	4.5	2.0	6.0
정보·통신	6.4	4.2	-0.4	0.7	-1.7	2.6	4.0
금융·보험	5.6	8.5	4.4	4.6	2.0	0.7	2.8
경기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	6.0	5.9	1.3	4.9	4.9	7.1	14.0

* 전산업 취업자 대비(%), '25년 평균 기준

자료: 국가데이터처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(KOSIS 국가통계포털)

- 경기도에서도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업 취업자는 금년 2/4분기 7.1%(7만8천명) 증가하여 1/4분기의 높은 증가세(4.9%, 5만3천명)를 이어 나감
- 경기도는 정보통신업과 금융보험업의 비중이 큰데, 두 산업의 전국 취업자 증가가

2/4분기에 양호하였으므로 경기도 취업자 증가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됨

- 정보·통신업에서 전국 취업자의 40.9%는 서울, 35.5%는 경기도이며, 금융·보험업은 서울이 31.0%, 경기도가 23.0%(지역별고용조사, '25년 하반기)

5)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 및 기타

- 전국 사업·개인·공공·서비스업 취업자는 2/4분기 1.9%(22만7천명) 증가하여 지난 1/4분기의 2.2%(24.9만명)와 유사한 폭으로 증가하였으나, 그 중 전문·과학기술 취업자는 2/4분기에도 △5.9%(△8.9만명)로 1/4분기(△6.0%)에 이어 큰 폭 감소
-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에서는 보건·복지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을 좌우하는 경향이 있는데, 전국 보건·복지업 취업자의 전년비 증가는 ('25.3/4) 290천명→(4/4) 261천명→('26.1/4) 255천명→(2/4) 229천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 전체 취업자는 감소
- 반면, 전문·과학기술 취업자는 1/4분기 △6.0%(△8만8천명) 감소에 이어 2/4분기에도 △5.9%(△8만9천명)로 비교적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감
 - 전문·과학·기술업 취업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'25년 2/4분기 151.1만명에 도달하였으나 '26년 2/4분기에는 142.2만명으로 감소

<표 3-5> 전국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 및 기타 산업 취업자 증가율

(단위: 전년 동기비, %)

전년 동기 대비	2025				2026		비중*
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	1분기	2분기	
전국 사업·개인·공공	3.1	4.0	4.1	3.1	2.2	1.9	40.9
부동산	-1.2	-0.4	6.5	1.5	6.4	6.3	1.8
전문·과학·기술	5.1	7.9	3.5	-1.3	-6.0	-5.9	5.1
공공·행정	-3.1	-1.1	-0.4	3.1	2.6	1.7	4.6
교육	4.1	2.6	0.1	-0.1	-3.7	-0.4	6.8
보건·복지	2.3	3.7	2.4	0.7	2.0	-0.5	11.0
스포츠·여가	6.2	7.4	9.6	8.9	8.5	7.1	1.9
개인서비스	2.8	1.1	7.5	12.1	10.2	9.3	4.0
경기 사업·개인·공공	3.4	4.3	2.7	0.5	-0.8	-0.8	40.2

주: * 전산업 취업자 대비(%), '25년 평균 기준
 자료: 국가데이터처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 (KOSIS 국가통계포털)

- 전문·과학기술업의 취업자 감소는 이례적이며, 금년 들어 사업·개인·공공·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 축소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
- 전문·과학기술업 취업자는 '25년 3/4분기부터 감소하여 금년 1/4분기와 2/4분기에 는 △6%에 가까운 감소세를 기록
 - 전문·과학기술업 취업자 감소는 사업·개인·공공·서비스업 취업자 증가율이 2/4분기 1.9%로 하락한 주원인 (표 3-5)
 - 취업자 감소와 반대로 전문·과학기술업 생산지수³⁾(불변가격 기준)는 2/4분기에 13.1%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므로(1/4분기 7.4%), 취업자 감소를 인공지능(AI)의 인력 대체 효과로 보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으나 직접적 관련은 낮음
 - 전문·과학기술업에는 ①연구·개발업, ②전문서비스업, ③건축·엔지니어링·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, ④기타 전문·과학기술업의 4개 산업이 있는데, 2/4분기 성장률은 각각 27.4%, 2.7%, 5.8%, 8.2%로 전문·과학기술업의 13.1% 성장은 연구개발업의 이례적인 높은 성장으로 인한 결과이며, 다른 산업의 성장률은 추세치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그침
 - 그러므로 2/4분기 전문·과학기술업의 13.1% 성장은 연구개발업의 이례적으로 높은 성장(27.4%) 때문이며 전문·과학기술 산업 전체가 이례적으로 크게 성장한 결과는 아님
 - 반면 취업자 수 구성은 전문·과학기술 전체 145만명 중 연구·개발 26만명, 전문서비스 60만명, 건축·엔지니어링·기타 41만명, 기타 전문·과학기술 18만명으로 연구·개발의 비중은 약 18%에 불과(지역별고용조사, '25년 하반기)
 - 더욱이 「지역별고용조사」에서 '25년 상반기~하반기의 전문·과학기술 전국 취업자 감소 분포를 보면 전체 7.1만명 감소 중 3.0만명은 건축기술, 2.0만명은 회사본부·경영 산업부문이므로 경기적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됨
 - 전체 7.1만명 감소 중 3.7만명이 건축기술·엔지니어링·기타 산업(72)인데 대부분 (3.0만명)이 건축기술·엔지니어링(721) 산업이며 전문서비스업(71)의 감소가 2.4만명인데, 그 중 2.0만명이 회사본부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(715)으로 전문·과학기술

3) 국가데이터처, 「서비스업동향조사」의 서비스업 생산지수임

술 취업자 감소는 대부분 건축과 회사 경영 관련 산업으로 산업기술 변화보다는 경기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됨

- 같은 기간 경기도는 전체 5.2만명 감소 중 전문서비스가 2.3만명, 건축기술이 1.6만명임

□ 경기도 2/4분기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 취업자는 전년비 $\Delta 0.8\%$ ($\Delta 2.5$ 만명)로 지난 1/4분기의 $\Delta 0.8\%$ ($\Delta 2.4$ 만명)에 이어 감소를 기록함

- 경기도에서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 취업자 감소($\Delta 2.5$ 만명)는 제조업($\Delta 7.2$ 만명)과 더불어 2/4분기 취업자 감소폭 확대($\Delta 5.4$ 만명)의 주요인으로 작용
- 금년 2/4분기 경기도의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 취업자 감소가 어느 산업에서 일어났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전국 추이를 보면 높은 증가세를 보이던 전문·과학·기술업에서 취업자가 감소($\Delta 8.9$ 만명)하였고 경기도는 전문·과학·기술 취업자 비중이 높은 만큼 전문·과학·기술 취업자가 감소하였을 것으로 유추됨

□ 전문·과학·기술업의 취업자 감소 현상은 인공지능 활용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인공지능 활용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근거는 부족함

- 전문·과학·기술업 취업자의 감소가 상당한 폭이라는 사실, 기술인력(tech jobs) 수요 감소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범세계적 현상이라는 사실이라는 점은 인공지능 활용 증가의 영향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사실인 반면,
- 인공지능이 아직은 현장에서 인력을 대체할 만큼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전문·과학·기술직 감소가 인공지능 활용의 결과로 단정할 수 없는 요인임
- 최근의 전문과학기술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는 코로나 직후 전문기술직 과다 채용의 영향, 기업들이 아직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를 결정하지 못하여 본격적인 인력 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 인공지능 외에도 다양한 설명이 제기됨
- 한국은행 최근 보고서도 인공지능 고노출 직종에서 청년고용이 감소하였다고 분석하여 관련성을 인정하면서도 단언할 수는 없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⁴⁾

4) 한국은행 최근 보고서는 “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청년고용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. ... 정보서비스업(-31.4%), 출판업(-27.4%), 컴퓨터 프로그래밍업(-16.6%), 전문서비스업(-11.6%) 등 AI 고노출 업종에서 청년고용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”고 분석(한국은행, BOK 이슈노트 ‘청년고용 위축, AI 탓인가? 변화하는 경력 사다리와 대응 과제’ 2026.8.19.).